

요약 보고서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평등이 존재했고, 지금도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 지표 보고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종차별과 그 외 다른 형태의 차별이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수 세기에 걸친 차별 정책과 관행이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 안전, 교육, 부, 사회 이동 등을 포함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생겨난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단지 인종, 민족, 성별, 체류 신분, 장애, 계층, 심지어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건강, 안전, 교육, 소득, 사회적 성공 면에서 불평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고,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 일반 시민들, 지역 사회 단체 등 모든 부문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조적으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잠재력이 열리고, 지역 사회 전반에 소속감이 조성되고, 이웃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로 2021년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태도, 정책,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부문별 핵심 내용입니다.

1. **2021년 지역 사회 및 시민 생활** 부문에서는, 카운티의 해안 및 동부 지역의 인종/민족 다양성이 중부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유권자 등록률은 카운티 중부 지역보다 동부 및 북부 해안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2017년(보고서 작성 당시의 최신 데이터)**에는 카운티 내 소수 민족 및 여성이 소유한 기업의 비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2. **유년기 발달** 부문에서는, **2021~2022학년도** 공립 학교의 노숙 청소년 통계에서 히스패닉계와 흑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2021년에는** 인종, 장애, 체류 신분에

따른 청소년 빈곤 격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백인 어린이보다 두 배 이상의 확률로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보고서 작성 당시의 최신 데이터)에는 성인의 63%가 18세 이전에 한 번 이상의 부정적 아동기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을 겪었습니다. ACEs를 겪은 비율은 카운티 전체와 비교했을 때 남성, 비히스패닉계 기타 인종, 비히스패닉계 백인, 히스패닉계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의 인종, 성별, 장애, 경제적 지위에 따라 2021~2022학년도 표준 시험 성적 격차가 컸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또래 학생들보다 우수했습니다. 또한 2021~2022학년도 졸업률에도 격차가 있었고, 2021년에는 3~4세 아동의 학교 등록률이 인종, 장애,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2022학년도에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학생들이 총 등록률에 비해 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 공립학교 학생 중 약 17%의 영어 학습자가 영어 구사의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 4 능숙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이 잘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3. **식량 체계** 부문에서도 인종, 성별, 장애, 체류 신분,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균형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인종/민족 간 식량 불안정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할 가능성은 백인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전체 카운티 주민보다는 2배 높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의 최신 데이터인 2019년에는 카운티의 많은 지역에서 식료품 접근성이 매우 낮거나 낮았습니다.
4. 집단 간 **건강** 상태의 차이는 출생부터 두드러집니다. 2021년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산모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은 백인 산모보다 2배 더 높았습니다.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성별과 인종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인종에 따라 최저 기대 수명과 최고 기대 수명 사이에 9.8년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구 조사 지역의 4분의 1 이상에서 정신 건강, 치아 건강, 1차 의료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백인과 비교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 혹은 알래스카 원주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5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는 3배 이상,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2배 더 높았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2021년 백인 및 아시아계 가구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보다 두 배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에 지출할 가능성이 다른 인종의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2022년 노숙자 수는 샌디에이고가 가장 많았고, 오션사이드, 출라 비스타, 엘 커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 2021년에는 **기반 시설**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가능성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그리고 기타 인종이 백인보다 높았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은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통근 시간은 카운티 동부 지역이 가장 길었으며, 특히 해안 지역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6.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부문은 **일과 재정**을 통한 기회 접근성이었습니다. 2021년 노동 인구에 포함된 장애인의 비율은 약 27%로, 72%의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애인의 고용률은 노동 인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인종, 성별, 장애, 체류 신분에 따라 빈곤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및 기타 인종, 장애인, 이민자가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일 가능성은 전체 카운티 주민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주민의 약 36%가 자립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추심 부채가 조금이라도 있는 가계 비율은 약 20%였고, 모든 부채 유형을 막론하고 유색 인종이 추심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다수 백인 집단보다 더 높았습니다.
7. 2021년 카운티 전체적으로 **공원**과 양질의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균형이 보였습니다. 카운티 내 8개 대기질 측정소 중 알파인은 오존 관련 '좋은' 대기질 일수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엘 커훈과 오타이메이사는 2.5마이크론 이하의 초미세먼지 관련 '좋은' 대기질 일수의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의 약 53%가 공원이나 지역 사회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준수했고, 사우스 카운티 해변은 해변 폐쇄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1년 **범죄 및 법체제** 부문을 살펴보면, 강력 범죄 발생률은 내셔널시티와 레몬그로브에서 가장 높았고, 재산 범죄 발생률은 델마와 내셔널시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89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증오 범죄 동기는 71%가 인종이었으며, 인종 증오 범죄의 거의 50%가 반흑인 또는

반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대의 결과를 보인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 부서를 제외하고, 샌디에이고와 칼즈배드에서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사람들이 차량 검문을 받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 부서는 청소년 체포율이 가장 높았고, 엘 커훈, 내셔널시티, 에스콘디도 경찰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1인당 입소율은 백인보다 높았으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의 입소율은 백인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다른 공공 데이터를 보완하고 지역 내 행동을 촉진해 이곳을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고 일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는 형평성의 중요성에 관한 지역 정부 및 기관 간의 합의를 끌어내고, 결과 개선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